

하이데거의 눈으로 ‘간호’를 바라보기: 실존하는 존재에 대한 성찰

김수미¹ · 최희승²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²

Looking into the Nursing from the Viewpoint of Heidegger: Reflections on the Existence of Being

Kim, Su Mi¹ · Choi, Hee Seung²

¹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article is aimed at broadening the perspectives of nursing by applying Heidegger's philosophical reasoning and views to nursing beliefs. **Methods:** Heidegger's main concepts on a human's way of being were the source for examining the encounter between care-receiver and care-giver in nursing. In addition, the paper illustrates the attitudes that nurses must present to their care-receiver in existential nursing. **Results:** As nurses and care-receivers experience existential crises due to anxiety about death and fear over uncontrollable situations, they both raise questions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ir existences. By putting their deep reflections on these questions into nursing practice, nurses can exist as "Mitdasein" and be open to a number of possibilities in nursing. **Conclusion:** Nurses must be open to a number of possibilities in nursing by embracing various experiences of life and individuality without criticism, and pursuing the existing lives of their counterparts as well as their own. They are able to take this attitude by rais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ife and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through ceaseless reflections on their experiences, then implementing the result of these reflections in their lives and nursing practices.

Key Words: Heidegger, Dasein, Mitdasein, Existence, Nursing

서론

하이데거는 후설의 현상학에서 영감을 받은 독일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후설과는 다른 방향의 철학적 문제를 추구하였다. 철학이 학문의 굳건한 바탕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했던 후설과 달리,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서 시작하여,¹⁾ 철학적 사고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 것을 기대한 것이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철학은 사유의 단초(端初)

로서 존재자 전체의 총괄 개념을 의미하는 ‘형이상학(形而上學, Metaphysics)’이고, 그것은 존재자의 존재를 전체에 있어서 사유하는 것이다.²⁾ 하이데거는 ‘이미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존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이미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자인 ‘인간’을 이해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¹⁾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하이데거는 후설이 간주하는 ‘이성적 활동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주요어: 하이데거, 현존재, 공동현존재, 실존, 간호

Corresponding author: Kim, Su Mi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10-5498-1906, Fax: +82-2-765-4103, E-mail: kimsny@daum.net

투고일 2014년 8월 6일 /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6일 /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17일

넘어서, 늘 어떤 상황 속에 처해있는 구체적인 인간, 즉, '끊임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가 되어가고 있는 존재자'로서의 인간을 말하고 있다.¹⁾ 인간 존재에 관해 하이데거는 바로 여기, 삶 속에서의 존재 방식을 말하였고, 그 모든 진술들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성찰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므로 하이데거가 진술하는 존재 방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구체적 삶의 경험들을 통해 성찰해보는다면, 삶 속에서의 존재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간호사로서, 간호를 하면서 겪는 경험들을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들을 통해 성찰함으로써, 그 경험 속에서 간호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간호에는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없다. 즉, 모두가 비중 있게 중요한 존재이다. 초기에는 '돌봄을 받는 자'에 관심이 집중되어,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돌볼 수 있을까'에 관한 연구와 실천들이 행해져왔다. 그러다가, 그 돌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의 관계, 즉, 주로 돌봄의 전달에 필요한 소통과 간호중재가 관심 대상이었고, 나아가 '돌보는 자'가 보다 잘 돌보게 하기 위해, '돌보는 자'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봄을 받는 자'는 돌봄의 대상자로서, '돌보는 자'는 도구적인 존재자로서, 그들의 관계는 돌봄에 필요한 도구로서 탐구되었을 뿐, 그 본연의 존재로서 탐구되지는 못하였다. 여기서 '간호 상황에서 이들 각각이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때, 이 질문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우선 하이데거의 존재에 관한 진술들을 간호의 경험과 연결시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간호를 함에 있어서 철학적 사유와 개념들이 간호에 대한 정체성과 신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삶 속에서의 인간의 존재 방식에 관한 하이데거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해 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를 개인적인 간호의 경험과 연결시켜 성찰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또 다른 신념을 열어 간호의 지평을 넓히는 시도를 할 것이다. 즉, 하이데거의 '존재'의 문제와 '간호'에 있어서의 개인적 경험을 연결하는데, 특히, 간호에서 필수적인 인간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숙고하고, 간호를 하면서 유념할 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정체성과 신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하이데거가 실존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들을 정리하고자한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현존재'라고 불리는 실존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현존재는 타인과 어떻게 실존하는지, 인간은 언제 현존재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현존재는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들을 간호의 경험과 연결하여, 질병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한 간호 상황에서, 간호사는 그 속에서 어떤 이해와 방식으로 환자와 실존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려한다.

1. 실존하는 현존재

1) 현존재

하이데거는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서 현존재(Dasein; 다-자인)라고 보며, 현존재의 근본 구성 틀을 세계-내-존재(世界內存在)로 볼 것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에 비해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초월함이며, 이 초월함에는 존재 이해가 속해 있음을 강조하였다.³⁾ '현존재(現存在)'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Sein; being)의 문제는 항상 거기(Da; there)에 드러난다'는 의미로서, 존재를 묻는 자에게 비로소 존재가 드러나며, 인간만이 존재하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묻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지칭한 것이다.¹⁾ 현존재는 다른 어떤 존재자에 의해서가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함을 의미한다.⁴⁾

하이데거에 있어서 일상성 속에 퇴락한 '세인'(das Man; 世人)은 익명적인 존재자이지만, 현존재로서 실존하는 인간은 구체적인 삶의 세계에서 이웃인 타자와 친밀하게 교섭하고 왕래하며, 타인과 동근원적(同根源的)인 존재자로서 서로의 존재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간적인 인간'을 의미하고 있다.⁵⁾ 현존재는 단지 혼자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언제나 그 무엇 혹은 그 누군가와 함께하는 존재자인데, 이 '더불어 있음'은 현존재, 즉 실존(實存)의 또 다른 존재방식이다.¹⁾ 실존함이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실존적인 수행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서,⁶⁾ 자신이 존재자와의 행동관계를 맺으며 존재자 곁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현존재의 본질은 언제나 이미 다른 존재자 곁에 머물러 있는 방식으로 실존한다.⁷⁾

현존재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현존재로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부여받은 여러 가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그 속에서 그 지위와 역할에 적합한 도구적 존재방식을 강요받고

본 론

인간의 존재 방식에 관한 하이데거의 개념들을 통해 간호의

살아가는데, 이것은 현존재로서 본래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비본래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상황에서 이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 질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게 된다. 즉, 우리의 존재가 낯설고 모호해질 때,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물어야 한다. 이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물음을 던지며 현존재로서 ‘실존’하게 된다.

2) 정황성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존재가 낯설고 모호하게 될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황성(情況性)’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는 항상 어떤 정황 속에서 존재한다.’⁴⁾고 한다. 정황성은 ‘기분’, ‘분위기’, 내지 ‘기분에 잡혀 있음’으로서, 인간의 존재방식 중의 하나인데, 이 정황성 또는 기분이라는 현상은 기초적인 실존범주이다.⁴⁾ 현존재는 상황적 존재자로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존재하는데, 하이데거는 인간 실존의 이러한 상황을 ‘세계-내-존재’라는 말로 표현한다.¹⁾ 인간은 세계 속으로 던져진, 혹은 상황에 내맡겨진 존재로서 결코 자신이 속한 세계, 즉, 자신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⁴⁾

우리는 늘 정황성, 또는 기분 속에 빠져 있는데, 이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계 속에 ‘던져진’ 것이다. 우리는 세계-내-존재로서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특별한 임무를 띠고, 목적으로 이 세계 내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던져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계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미리 계획되고 선택된 삶이 아니기에 인간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며, 가능성의 존재자로서 인간 실존은 미래를 향한 존재자가 된다.¹⁾ 즉, 우리의 삶은 목적적이지 않으므로 오히려 미래의 여러 가능성을 안고 있다.

3) 불안

인간이 세계 속에 던져져 정황성, 즉, 기분에 빠져 살고 있는데,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미래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 죽음이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은 알지 못함, 낯설음, 그리고 ‘없음’이다.¹⁾ 그 죽음은 미래의 언제 다가올지 모르며,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전혀 아는바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미래를 지향할 때, 인간은 그 미래의 끝인 죽음에 대해 낯설어하고(익숙하지 않음), 아무것도 없음을 예상하게 되

며,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 여기에서 인간의 근본 기분인 불안이 기인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하이데거에게 불안이라는 현상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죽음과 진지하게 대결할 때 죽음은 우리에게 현존재의 가장 독자적 존재가능성을 개시한다고 한다.⁸⁾

불안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기분이므로, 인간의 인식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인간이 불안을 감지할 수 있는 낯선 상황, 또는 권태로움에 직면할 때, 인간은 불안을 인식하면서,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을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는 곧 현존재로 있게 되는 기회가 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진정한 실존에 이르게 된다. 『존재와 시간』(1927)에서 불안은, 우리를 세인들의 세계로부터 해방시켜 단독자화하면서 우리에게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본래적인 실존 가능성을 개시하는 동시에 우리의 본래적인 실존까지도 규정하는 기분으로 간주되고 있다.⁸⁾ 하이데거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즉 우리의 삶이 본래적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 대한 반성이나 어떠한 외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몰두하다가 우리를 불현듯 사로잡는 불안이라는 근본기분에서 알게 된다고 한다.⁸⁾

인간의 근본 기분으로서의 불안, 죽음을 염두에 둔 불안, 인간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없음’을 가장 절실하게 실감하게 하는 상황으로서, 불안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물어볼 수밖에 없으므로, 현존재가 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인간으로 하여금 현존재가 되게 하고, 삶을 더욱 진지하게 살 수 있게 한다. 현존재는 실존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한 채 권태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진지함으로 오늘을 살게 되며, 매 순간 미래를 향해 자신의 존재 전부를 거는 진지함을 보인다.¹⁾

반면,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익숙한 상황에 머무르려고 하거나, 권태로움을 피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하면서 삶 속에서 본래적 존재가 아닌, 비본래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진정한 실존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는 주어진 자신의 삶에 진지하고 충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4) 두려움

정황성의 구체적 양상 중 하이데거가 불안과 더불어 이야기 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두려워함은 현존재가 두려운 것을 만남으로써 일어나는 정황성으로서, 오직 존재하면서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존재자만이 두려워할 수 있다.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두려움의 대상, 두려워함

자체, 두려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말한다; “두려움의 대상들은 위협을 주는 성격을 지녔으며 유해한 것이며, 그것과 마주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있다. 두려운 것은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만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현존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세계-내-존재로서 실존적 공간에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존재는 자신이 처한 세계가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 때문은 아니다. 두려움 역시 불안과 마찬가지로, 현존재의 실존을 경험하게 하는 정황성 중의 하나이다.”⁴⁾

한편, 현존재는 다가오는 위협으로 인해 타자와의 공동존재(더불어 있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다.⁴⁾ 타자와의 공동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세계 내에서 존재하면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 중의 하나인데, 현존재로서의 타자와의 관계맺음은 인간 실존의 또 한 방식이므로 실존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5) 이해

현존재는 이해로서 자기의 존재를 가능성들을 향해 기투(企投)한다.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의하면, 인간 존재는 자신의 가능성을 알고 있고, 그러므로 그 가능성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가능성들을 알고 있음을 ‘이해’라고 부른다.⁹⁾ 인간은 이성으로 현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통하여 현존재를 삶 속에서 구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이해’이며, ‘정황성’과 함께 실존의 방식인 것이다. 즉, 현존재는 관념으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이해의 완성된 형태를 ‘해석’이라고 한다.⁴⁾ 인간 존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자기 인식, 이해)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⁹⁾ 실존은 인간의 사유 속에서의 여러 가능성들이 현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될 때에야 이루어지며,¹⁾ 그 삶의 방식은 다양하다. 인간이 현존재를 발견하는 과정에는 의식 속에서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실천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6) 공동현존재로서의 타자

앞서, 현존재에 대한 설명에서, ‘현존재의 본질은 다른 존재자 옆에 머물러 있는 방식으로 실존한다’⁷⁾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존재자’, 즉 ‘타자’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하이데거는 나의 현존재를 자기존재와 공동존재로 나누는 것처럼, 타자의 존재방식도 타자-자기존재와 타자-공동존재

로 구분하였다.⁵⁾ 우리의 존재는 나이든, 타인이든 각자성과 공동체성이 동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와 타인은 세계-내-존재로서 각자의 고유한 자기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호의존하고 관계한다. 나와 타인은 자기로 존재함과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존재는 자명한 존재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능 존재로서 자신의 존재와 타자의 존재에 열려 있는 개방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이다.⁵⁾

하이데거는 “타자에의 존재, 타자와 함께 있는 존재 속에 현존재에 대한 현존재의 존재관계가 정립되어 있다. 이런 관계는 스스로 타고나면서부터 존재이해를 갖고서, 그렇게 현존재와의 관계를 스스로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의 현존재를 이미 구성하고 있다”⁴⁾ 고 「존재와 시간」에서 진술한다. 현존재가 실존하는 것에는 현존재로서의 다른 타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서로의 관계맺음이 실제적 삶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자와 관계맺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까?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¹⁰⁾에서 이 관계를 심리적인 ‘감정이입’이 아니라, 실존론적인 ‘타자 속으로 자신을 옮겨 앉혀볼 수 있음’에서 다루고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다른 사람 속으로 자신을 옮겨 앉혀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의 고유한 본질에 속하며, 이것은 나를 잊거나 포기하고 타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유지하고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이다.¹⁰⁾ 여기서, 나와 타인은 공동현존재(Mitdasein; 共同現存在)로서 실존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나와 타자는 각각 현존재로서, 동시에 공동존재로서 세계 안에서 실천적 삶을 공유하고 상호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공동현존재로서의 실존인 것이다.

2. 간호경험에 적용하기: 실존하는 간호

앞에서, 하이데거의 존재의 방식 중 실존과 관련한 몇 가지 개념들-현존재, 정황성, 불안, 두려움, 이해, 공동현존재-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이제는 그 개념들이 개인의 삶과 간호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조명될 수 있는지, 특히, 간호의 경험 속에서 인간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개인적인 간호경험을 통해 성찰하고자 한다.

1) 간호사와 환자의 만남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는 간호학생 때의 간호사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 진짜 ‘간호사’가 되어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만난다. 이제 근무하는 병동에서

다루게 될 질환 및 필요한 간호중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에도 능숙하게 되면서 ‘간호사’로서의 도구적 존재자와 ‘환자’로서의 대상적 존재자는 더욱 그 입장을 굳건히 하게 된다. ‘환자’를 위하여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간호사’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간호사’이기 이전의 자신의 본래적 모습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즉, 간호사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움, 도전적인 상황 속으로 내던져지는 경우를 이따금 경험할 것이다; 간호사를 믿지 못하고 재차 약을 확인하는 보호자,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격적인 태도로 위협하는 환자와 보호자,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가까운 죽음을 예견하게 하는 환자, 간호사 자신이 조절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간호사는 당황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간호사’로서의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간호사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어렴풋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더 깊은 성찰과 실천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자신에 대해 분석하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그칠 수도 있다. 이에, 여전히 자신은 간호사인 도구적 존재자로 남아있고, 간호사가 돌보기 위하여 만나는, 즉 간호대상자로서 만나는 그들은 간호사가 공감하면서 이해해야 할 ‘환자’인 대상적 존재자가 된다.

2) 실존의 경험

이후에도 여전히 ‘돌보는 자’로서 계속 병원,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로서 오랜 기간 ‘돌봄을 받는 자’인 간호의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삶이 그렇게 흘러갔는지, 아니면, 자신이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삶의 경험에서 자신의 한계를 접하면서 진정 심각하게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한계를 가져다 준 경험이 극한 상황이나 극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의 실체를 쫓아가다보면, 은폐되어 있던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현존재로서 실존하는 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면서, 자신이 살아있음, 즉 실존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는 인간의 근원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이때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의 차원에서 자신이 정립한 세계의 주인으로서 세계-내-존재라는 방식으로 존재한다.¹¹⁾

인간이 항상 실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 속에서 그런 실존의 경험이 찾아오는 순간이 가끔 있다는 것은, 즉, 본래적 자신이 되는 순간이 가끔 있다는 것은, 살아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현존재와 현존재의 만남; 공동현존재

그런데, 그런 실존의 경험 이후, ‘돌보는 자’(도구적 존재자)와 ‘돌봄을 받는 자’(대상적 존재자), 그리고 그러한 둘 사이의 만남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의문이 생기게 된다;

‘나는 그들에게 돌보는 자로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실존하는 인간으로서 그들 앞에 있는가?’

‘그들은 나의 돌봄을 필요한 자로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실존하는 인간으로서 내 앞에 있는가?’

‘나는 그들을 위해 도움 되는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해주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점점 ‘간호(돌봄)대상자’, ‘간호(돌봄)제공자’라는 당연한 호칭들이 부담스러워지고, 자신과 간호대상자와의 만남에 있어서도 보살핌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그저 본래적 인간으로서, 역할과 문제를 벗어난 현존재로서 만나고자 하는 바람이 커져간다.

실제로, 그들을 만날 때, 현존재로 실존하고 싶은 자신은 그 만남에 집중하면서, 머릿속이 비워진 것과 같은 태도로 상대방을 맞이들인다. 즉, 상대에 대해 분석하고, 단정하고, 판단 짓느라 그와의 만남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그저 존재하는 한 인간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상대방의 자리에 앉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만남 속에 온전히 머물게 되면, 그 충실함이 상대방에게 바로 그 순간에 적절한 태도와 도구들을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하게 해줄 수 있다. 힘들게 의도하거나 꾸미지 않고도 저절로.

그들이 그 만남 속에서 현존재로서 실존을 경험하는지는 그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여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존하는 간호에서, 돌봄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의 만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돌봄 제공자가 현존재로서 돌봄 대상자 앞에 실존함과 동시에, 그들이 처한 불안하고 두려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존하는 순간이 있기를 바란다. ‘나’와 ‘타인’이, 현존재로서 서로 관계하는 것, 공동현존재로서 실존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가능성이며,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당연한 것이다.

4) 하이데거의 시각으로 본 간호경험의 성찰 사례

이와 관련하여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과정에서 한 간호사가 경험한 사례를 개인적인 고백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의 이식 이후의 적응적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심리 중재를 제공하던 중, 나는 그들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깨는 발견을 하였다. 나의 선입견은,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은 신장이식을 통해 이식 전의 신체적 불편함,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이식 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최소한의 투약, 생활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잖았다. 이것은 단순히 드러나는 건강관리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자리 잡은 ‘남들보다 가까운’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이식 후의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동기를 상실한 것의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식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유한한 신장 기능-자신의 삶에서 한 번의 이식만으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식의 실패 상황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과의 만남에서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늘 타인과 다름을 인식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은 남과 다른 자신의 몸에 대해 타인과의 이질감, 오랜 투병과정 속에서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식 이후의 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의욕이나 동기를 발휘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신장이식 청소년들의 입장을 발견하게 된 데에는 내가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에 대해 간호제공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태도를 접어두고, ‘우선 그들의 처지에 들어가 보자’는 태도로 접근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들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또한, 나의 개인적 삶에서의 유사한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경험들과 그들의 경험을 접목시켜보는 과정에서, 보다 그들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이나 행동교정으로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자신의 존재에 대해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도들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행동의 변화 이전에 보다 근원적인 변화로서,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이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존

재에 대해 깨닫고, 바로 그곳에 실존함으로써 자기 삶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실제 간호에 있어서의 성찰 사례를 통해, ‘간호 대상자’가 드러내는 ‘중재 대상 행동이나 증상’보다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간호의 대상자가 주어진 삶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다. 철학적 보살핌은 그가 처한 삶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으로부터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이는 현존재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¹²⁾ 즉, 인간 존재의 몰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살핌이 일어나고, 완성된다.

결론

앞에서, 하이데거에 의해 이야기된 존재방식의 몇 가지 개념들과 이 개념들에 관련하여 간호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한 만남에 대해 서술하였다. 초기에는 투철한 직업의식과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자’(돌보는 자)로서 충실하려 했던 도구적 존재자가, 개인의 삶 속에서 실존을 경험하면서 자신 뿐 아니라 ‘간호 대상자’(돌봄을 받는 자)를 더 이상 대상적 존재자로 보지 않게 되고, 그저 본래적 인간으로서의 만남에 충실하게 되면서 현존재와 현존재의 만남을 추구하게 된다.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각자가 실존을 경험할 때, 그것이 현존재와 현존재로서의 진정한 만남인 것이다. ‘나’와 ‘타자’가 공동현존재로서 세계 속에서 존재하며, 간호 상황이나 실제적 삶 속에서 그 실존적 만남이 실천될 때 서로에 대한 돌봄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이 존재자를 ‘존재하게 함’으로써 진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존재자에 대한 기술적 지배의 태도가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 숙고하고, 초연하게 내맡기는 사유며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¹³⁾ 즉, 하이데거가 서술한 존재 방식들을 나름 이해하면서 한 개인의 간호의 경험과 사례를 들어보았는데, 하이데거적인 사유를 어떻게 간호에 적용할까를 고민한다면,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 상황에서 ‘돌봄의 대상’을 만나게 될 때,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나와 그의 만남을 어떤 기본 전제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간호 상황이든, 일상적인 상황이든 한 인간 또는 인간의 집합을 만나게 될 때, 그 상대에 대한 일반화와 단정 짓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과연 객관화, 일반화할 수 있는 존재일까? 아니다. 인간은 각각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경험하므로 절대 객관화, 일반화 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이 처한 삶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개인에 대한 이해를 그 개별적인 삶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둘째, 간호는 인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각기 다양한 삶 속에서 존재하므로 그 만남 역시 일반화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다양성 만큼이나 간호 역시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간호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간호학 역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테두리를 포함하면서도, 그 한계를 벗어나, 인간에 대한 보다 깊고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하면서 인간에 대한 주관적인 탐구와 다양한 돌봄의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 상황은 인간의 근본기분인 불안에 더 깊게 빠지게 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생명이 위협받고,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개인의 존재가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불안과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의미에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현존재로서 있게 되는 실존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혀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그 과정에서 현존재로서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자에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 상황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더 이상 도구적 존재자, 대상적 존재자가 아닌, 실존하는 현존재와 현존재의 동등한 만남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자들이 자신의 존재와 진리 속에 있도록 허용하고, 사물들을 지배하려는 작위적인 형이상학적 의지에서 벗어나 맑고 열린 마음으로 사물들 가까이 친숙하게 관여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보살핌의 사유이며, 인간의 본래적인 삶의 방식인 것이다.¹³⁾

이상, 위의 측면에서 간호를 바라볼 때, 간호를 실천하는 사람의 태도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를 실천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 단정 짓거나 일반화하지 말아야 하며, 인간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개별성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간호의 가능성에 열려 있으며, 불안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실존적 가능성을 지지하도록 노력한다. 간호를 실천하는 사람은 경험에 대한 부단한 성찰과 의문을 통해 삶과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 나가며, 그 질문의 결과를 간호 상황을 포함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와 상대방에 대해 현존재로서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으며, 공동현존재로서 실존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들이 간호를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간호’ 역시 실존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Park SU, Husserl & Heidegger: Phenomenology, get over the crisis of the philosophy. 2nd ed. Paju: Kimyoungsa; 2007.
2. Park YJ. A study of the determination of existence in Heidegger. Heidegger Studien, 2005;12:57-78.
3. Cho HK, Dasein's existence and transcendence in the viewpoint of M. Heidegger. Heidegger Studien, 2012;28:239-60.
4. Heidegger M. Being and Time. Trans. Lee KS. Paju: Sallim; 2006.
5. Kang HS. About the other as Dasein in Heidegger. J Korean Philosophical Soc, 2009;(86):147-70.
6. Park CK. A point of contact of philosophy and life. J Soc Philosophical Stud, 2003;16(1):262-78.
7. Heidegger M. The basic problems of phenomenology. Trans. Lee KS. Seoul: Moonyei; 1994.
8. Park CK. A critical contemplation on the angst realized in the early Heidegger's philosophy.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2008;(62):143-77.
9. Cho HK. Human being, possibility, and time. Philosophy and Culture, 2006;12:193-216.
10. Heidegger M. The fundamental concepts of metaphysics. Trans. Lee KS. Seoul: Moonyei; 2001.
11. Son YS. Analysis of existence and existence analysis.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2006;36:107-24.
12. Roh SS. Dasein analysis and philosophical counseling for a tragic life.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2011;26:59-92.
13. Kang HS. Phenomenological thought of being regarding to the care of Heidegger. Research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2001;18:142-75.